위대한 문학은 그 시대 삶의 진실

—조금은 늦은감이 있지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겠군요. 예년과 같이 본교출신의 신춘문예 당선자가 많이 탄생했읍니다. 재학생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기쁩니다. 응모자로서 신춘문예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지을 수가 있겠읍니까?

▲박주택=신춘문예를 통한 문단 데뷔는 무엇보다도 화려하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제

<조 태 일>

문학의 민중은시대적 동질성을지닌 사람으로 위대한 문학이란……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성격이·안정되었다 보니 소위 문학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는것 같습니다. 또한 역사가 깊고 신문이라는 특수한 특성을 지닌 매체를 통해 등단하므로 등단작가의 발전가능성이 무한히 제시된다고 볼 수 있는거죠.

▲이유범=전 박군의 안정적이라는 관점에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화려한 데뷔임에는 틀림없읍니다. 하지만 신춘문예는일단 년간 각 부문의 응모작품수가 많기 때문에 한 작품에 너무 완벽함을 요구하는 성격을 띠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선 오히려 응모자에게 부담감을 가져다 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읍니다. 그렇지만 잡지문예현상의 경우 여러작품—대개가 5편내외지만—을 최종적으로 심사·소개하기 때문에 한 작품의 평가보다는 작가의 시세계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신문보다는 잡지쪽이 더 화려한 데뷔가아닐까 합니다.

▲박=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신춘문예중 시의 경우는 3편의 작품으로 응모하는데 그 작품만으로는 완벽성을 기할 수가 없읍니다.

▲정상현=재학시절 신춘문예에 한번 응모해봤읍니다만 보기좋게 떨어졌읍니다. 결국 작년『문예중앙』시인추천제에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게 되었읍니다. 운이 좋았던게죠. 대학 졸업후 글쓰는 버릇을 버리지 못해 개인적 고민으로 졸업후에 쓴 작품들을 하나하나 모아 정리하여 응모한 것이 성과를 거두게 되었죠.

—사=신춘문예의 성격을 규명해봤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작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많은 이견이 나올것같군요. 문학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우선 문단이 존재하는가에 의문이 가요. 등단절차가 작품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것인가요.

한작품을 놓고 볼때 이는 보는이의 시각에 따라 평가는 판이하게 달라지는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작품의 잘됨과 잘못됨을 가려야 하는데는 의문이 가는군요.

▲조태일=저도 그러한 시각에는 동의합니다. 저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작품을 한사람의영향력을 떠나 보다 많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싶어 신춘문예에 응모하게 되었죠. 신춘문예의 성격은 가부장적체제의 등단 방식이 아니고 다수의 독자에게 읽힐 신문지상을 통해 꼭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여러계층에 소개된다는 잇점이 있읍니다.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사실 전 돈이 필요해서 응모했다고 볼수 있읍니다. 경제적상황상 책값도 없고해서 상금을 타면 어느정도는 해결될것 같기에……

사실 그당시 상금으로 두달치 하숙비에 두달간 매일 술을 마셨을 정도니 많았다고 할 수 있죠. 각설하고 문단데뷔에는 추천·현상문예·신춘문예 자기 시집으로 독자들에게 접근하는 형태등이 있읍니다.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고 기본적인 입장은 4번째라고 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지양해야 할 성격입니다. 현상문예로 등단하는 작가들은 그 시대의 쟁점에 맞아 떨어지는 작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으므로 형식에 얽매이는 규격화된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기존 문학인에 대한 도피라는 생각을 짙게 풍기고 있다고 볼수가 있겠죠.

<이 유 범>

무크지 동인지 활성화는 제도적 장치없이 독자와 직접대화 요구……

질홉속의 일제하40년과 해방 40년이지나면서 많은 시인들이 배출되었읍니다. 어려운 시대이므로 문학에많은기대를 걸고 있었죠. 4·19직후 민족문화, 제3세계문학, 민중문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군요.

▲박=문학도 결국은 삶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인생 바로 그자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회과학쪽에서는 민중에 봉사하는 추세가 압도적입니다. 문학은 활자화되어 독자에게 접근하는 매체로서 파급 효과가 어느 매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예 문인들의 주제로 떠올리는 「그리움」은 시대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감성적 반발력이라고볼 수 있읍니다. 더불어 이 그리움은 갈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굽힐줄 모르는 인간정신의 표상일것입니다.

▲정=작가로서 자신이 쓰는 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생활인으로의 나와 시 속의 내가 부합되도록 실천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글로 행위를 표현해보면 반성할 점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장편은 숲을 보여주되 한그루의 나무를 세밀히 보여줄 수 없듯이 단편또한 한그루의 나무만을 보여주고 숲을 보여주지 못하는 장단점이 있읍니다. 하지만 시는 나무의 단면만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압축성의 한계를 넘어서 생활의 시와 지향하는 꿈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애쓰는데 생각만큼이나 잘 되지 않더군요. 결국 제 자신이 저한테 충실함으로써 우리모두의 생을 논하고 공감대를 형성, 같은 사념을 제시하는 노력이지요.

단편만을 논할때「나는 아프지 않지만 우리모두는 아픈시대가 아니겠읍니까. 모두의 아픔을 대변해 보려는 착실한 시작업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합니다.

—사=문학이 사회를 이끄느냐, 사회가 문학을 이끄느냐등 문학가의 사회적 책임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로서의 이상사회, 참된 美의 塲을 향간에 떠도는신춘문예는 고아라 규정짓는 루머는 믿지않습니다.

문학이 독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80년대이후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빼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문학에서만은 이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박=제도적·규격적 성격이 80년 초반에 깨어지고 관념적 추상적에서 구체적이고도 선명한 이미지가 대두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은 문단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매체에 이끌리는 현시대에 있어 신문문예의 중요성은 좀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봅니다.

단순히 신문사의 기호에따라 심사기준을 정해놓는다면 매체에 이끌리는 신춘문예라는 전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1986년 신춘문예 출신 동문과 한자리에

좌담

올해도 본교 출신의 신춘문예 당선자가 탄생하였다. 본사에서는 당선자를 중심으로 좌담을 마련해보았다. 경향신문 평론부문당선자인 유제하동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선 신춘문예의 성격, 문학의 사회적 책임, 80년대의 문학의 흐름, 민중문학, 문학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편집자의 말>

◇참석자◇

조태일 (중앙일보 시부문 심사위원)

이유범 (동아일보 평론부문 당선)

박주택 (경향신문 시부문 당선)

정상현 (85년 문예중앙겨울호 시부문당선)

◇일시=1986년 2월 25일
◇장소=본사편집실
◇사회·기록=박영선記者
마정미記者

작가들이 침묵하고 있는 시대에 지방동인 활동 활발

정치적 규제없는 문학풍토 조성이 아쉬워

많은수의 예비작가들이 응모를해 작가층도 두텁고 주제 또한 다양화된 양상을 띄고 있읍니다.

▲조=이번에 제가 중앙일보시 부문심사를 했읍니다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리움, 연가등 시대적 그리움과 같은 더 바람직한 사회에의 열망을 추구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었읍니다. 박군·정군은 시를써서 알겠지만 요즈음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군요.

▲박=문학도 결국은 삶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인생 바로 그자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회과학쪽에서는 민중에 봉사하는 추세가 압도적입니다. 문학은 활자화되어 독자에게 접근하는 매체로서 파급 효과가 어느 매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예 문인들의 주제로 떠올리는「그리움」은 시대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감성적 반발력이라고볼 수 있읍니다. 더불어 이 그리움은 갈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굽힐줄 모르는 인간정신의 표상일것입니다.

▲정=작가로서 자신이 쓰는 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생활인으로의 나와 시 속의 내가 부합되도록 실천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글로 행위를 표현해보면 반성할 점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장편은 숲을 보여주되 한그루의 나무를 세밀히 보여줄 수 없듯이 단편또한 한그루의 나무만을 보여주고 숲을 보여주지 못하는 장단점이 있읍니다. 하지만 시는 나무의 단면만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압축성의 한계를 넘어서 생활의 시와 지향하는 꿈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애쓰는데 생각만큼이나 잘 되지 않더군요. 결국 제 자신이 저한테 충실함으로써 우리모두의 생을 논하고 공감대를 형성, 같은 사념을 제시하는 노력이지요.

단편만을 논할때「나는 아프지 않지만 우리모두는 아픈시대가 아니겠읍니까. 모두의 아픔을 대변해 보려는 착실한 시작업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합니다.

—사=문학이 사회를 이끄느냐, 사회가 문학을 이끄느냐등 문학가의 사회적 책임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로서의 이상사회, 참된 美의 塲을 향간에 떠도는신춘문예는 고아라 규정짓는 루머는 믿지않습니다.

문학이 독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80년대이후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빼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문학에서만은 이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박=제도적·규격적 성격이 80년 초반에 깨어지고 관념적 추상적에서 구체적이고도 선명한 이미지가 대두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은 문단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매체에 이끌리는 현시대에 있어 신문문예의 중요성은 좀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봅니다.

단순히 신문사의 기호에따라 심사기준을 정해놓는다면 매체에 이끌리는 신춘문예라는 전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우리 문단의 문학인은 거의 침묵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문학가이기전에 인간이므로 개인적 도덕과 사회적 책임을 염두해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혁명보다는 인간적 사회책임이 앞서서 인간의 발언을 하는데있어 차단되는 압력이 개입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모든 문학은 철학·사회·정치를 포용해야 하겠고 거꾸로 문학이 그밑에 있으므로해서 전문인으로서 문학인이 아니라 인간적 책임에대해 문학이 제도·이데올로기의 노예여서는안됩니다.

—사=6.25사변 직후 50년대, 4.19, 5.16직후 60년대 유신의 70년대 5.17직후의 80년대 즉 획기적 사건으로 인한 문학의 주류에 대해서 말씀에 주십시요.

▲조=해방·4.19·유신·80년대를 겪어오면서 문학인이 퍽 영리해져단 간다는 느낌입니다. 문학은 지자제 활동으로 충분한데 정치적으로 6.25, 선거이후 지자제가 실행되지 않았지만 문학은 지방동인으로인해 활발합니다.

60년대 동인지 80년대부터 지방의 소집단운동 제3세계 문학으로 맥이 이어져 80년대에 그칠것이 아니라 60년대부터의 흐름을 파악 결산하며 평가해봄도 좋겠죠.

▲이=70년대초 상업주의가 팽배함에 따라 문학에서도 드러나게 되었는데, 특히 소설부문에서 ㅊ씨, ㅈ씨를 대표로 문학과 상업이 결탁한 대표작가로 꼽을 수가 있겠읍니다.

80년대 구분되는 양상은 소설측은 상업에 대한 사조등으로 순수정신의 결여로 작가들의 자성과 시청각 매체의 스포츠·레저붐으로 인해 확실한 구별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박=시의경우 상업성 보다는 유행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70년대의 리얼리즘의 대두 80년대에 편승되어 흐름에 따라 민중시로 발전 국가적-사회적 사건으로 인해 현격한 영향을 받고 있읍니다. 특히 80년대는 동인지 활동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밝지못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당분간 문학사조상 10년은 지속될 것 같군요.

▲정=국내의 제3세계 그맥이 큰 것으로 이면의 자기작업을 시도하는 많은 시인은 민중시에 대해 자신의 소외감을 느낄정도로 유행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성격상의 문제가 크겠죠.

민중시 이외는 지엽적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읍니다. 나름대로의 맥을 찾아야 합니다.

▲조=창비·무크지 탄압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읍니다. 정치적 규제없이 정당한 민중적 문학은 발전 시켜야하는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하는데—.

▲정=민중·노동시의 감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생활속의 아름다움도 진실한 문학으로

<박 주 택>

최근 신예문예인의 주제로「그리움」이 부상되는 것은 시대적……

같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편견만으로 문학작품을 평가하는데서 문학사적 큰 오류를 이 시대의 작가와 독자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작가는 총체성을 지녀야 하겠읍니다. 테마는 다양한 소재로서 민중을 흡수하고 역사의식과 부합 맥을 잇는것이 민중문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중시의 테두리가 아닌 진실성의 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작가의 책임으로돌려야합니다.

▲이=역사가 여태껏 말해 주었듯이 시간이 지나면 평가는 옳게 내려질 것입니다.

▲박=카프문학과의 과도기입니다. 산문으로의 메시지 강조는 효용성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민중시는 효용성과 쾌락성과의 궤를 달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순수문학성 결여는 순수시인이 더욱 심합니다. 양지쪽 사람은 양지만을 부르짖고 음지쪽 사람들의 애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우리문학이 세부적으로 분열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문학이라면 이에 대립되는 특권문학 내지는 자본문학이라도 따로 존재한다는 말인가요? 물론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민중문학을 계급문학으로 보는 것이 부당함은 자명합니다.

오늘날 민중문학이란 우리 삶의 투영이외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릇 위대한 문학이란 그 시대 그 사회의 삶의 진실된 반영임을 확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민중문학, 아니 문학은 우리 시대의 삶의 맑은 거울이면 거울이었지 배척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없고 근거도 없읍니다.

—사=네. 위대한 문학이란 그 시대 그 사회의 삶의 진실된 반영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요. 오늘 장시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문단에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는 작품을 많이 쓰시길 바라겠어요.

<정 상 현>

생활에 충실함으로 생의 단면을 논하고 모두의 공감대를……

英語는 ㈜시사영어사

大学 新入生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大学 4년은 英語를 마스터하는 마지막 기회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모두 大学시절에『時事英語研究』의 애독자였읍니다.

時事英語研究
The Study of Current English

Abortions in China
중공의 인구정책 —美 학자가 고발하는 중공 산아제한 정책의 實像

The Age-old War of the Languages
프랑스인들의 생활 깊숙히 침투한 英語 —The New York Times

Watch My Style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By William Safire

세계의 유명지 社說
The Shuttle was Never Routine —The Washington Post
Soviet Interest in Asia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Marcos' Days Are Numbered —Business Week

■ TOEFL 旣出 문제 ■ 풍자만화 Doonesbury와 미국영어

VISA INTERVIEW 요령
美 대사관 領事課 제공
해외 유학은 이렇게 준비하자!
시사유학개발원 제공

■ 이달의 영화대사

스크린 영어교실
—By Lawrence Maguire

3 월호

ABC
MEMBER OF THE AUDIT BUREAU OF CIRCULATIONS
판매부수 공증기관
영국 ABC 정회원

■ 정기구독 문의처
서울(265)0509 (273)2588 (266)9936 (266)9905
부산(802)7435 (802)7445 대구(45)8890 광주(22)2376
대전(253)9885 청주(53)5257 전주(2)5328 수원(34)0721
인천(882)4122 강릉(2)2164 춘천(52)5134 제주(23)1844

英語世界

All's fair in
Play and Politics
양반 원숭이, 상놈 원숭이 —New Scientist誌

팝 아티스트 순례 British Rock의 거봉 Deep Purple

특별기획 I. 영어의 귀는 이렇게 뚫어라…· TV드라마 만세
II. How Not To Be Successful In Learning English
십년 영어공부 도로아미타불로 만드는 비결

Could You Pass Test for U.S. Citizenship?
미국 시민권 시험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

■ 독자들이 참여하는 영작 교실
English Composition Workshop
그건 이렇게 써야죠

■ 이달의 영화

㈜시사영어사